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4)

도코보 - 천연 소재 혼방의 관록 과시

도코보(同興紡)는, 20여년 전부터 “천연 소재만의 혼방”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오면서 많은 혼방사를 개발해 왔는데, 그 혼방사 중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많은 수요를 유지해 온 것이 면·양모 혼방사 “아비이”이다.

면·양모 혼방사로써 면 50%·양모 50%, 면 60%·양모 40%, 면 80%·양모 20%의 3종류가 있으며, 면은 모든 혼방사에 수피마(supima)를 사용하고 있으며, 20수, 30수, 32수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면과 양모를 혼방하려면 첫째로 면과 양모의 섬유장이 너무나 달라서, 면방적 시설로 양모를 면과 함께 뽑으려면 양모를 면 섬유와 같은 길이로 끊어줘야만 혼방이 가능하다. 또한, 면은 알칼리에 강하면서 산에는 약하고, 양모는 반대로 알칼리에 약하지만 산에는 강하여 염색 가공에서는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여름이 끝나면서 초가을로 접어들 잔서(殘暑)의 계절에는, 면의 염색 가공 기술이 우수한 염색 공장에서 염·가공하여 여름 옷에 겨울을 가미한 면의 태를 살리도록 하고, 반대로 겨울이 다 지나 햇살은 따스하면서도 찬바람이 부는 이른 봄에 파는 상품은 양모 가공 기술이 뛰어난 공장에서 겨울 옷다운 양모에 다가오는 봄 기운을 면으로 살린 태를 만들어 계절 감각에 알맞게 염색하고 있다.

“아비이” 브랜드로 생산된 제품은, 양모의 장점과 면의 장점을 적절히 살려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좋아 따스하므로 여성들을 위한 내의의 수요가 많다. 최근에는 초 봄이나 초 가을에 여성용 내의로 원형 편포, 횡 편포의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비이” 이외의 혼방사로서는 면 70%·터키의 앙고라(Angora) 30% 혼방의 “아니”, 면 60%·양모 30%·남미의 알파카(alpaca) 10%의 “알파치노”, 면 85%·티베트의 야크(gyak) 15% 혼방의 “플라토”, 면 80%·인도의 캐시미어(cashmere) 20% 또는 면 85%·캐시미어 15%로 혼방한 “클리프” 등이 생산되며, 이들에 사용된 면은 “수피마”만을 사용하였고, 각종 수모(獸毛)는 세계의 여러 산지로부터 수집하여 독특한 면 방식 양모 또는 수모 혼방사를 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면 방식에 각종 모사의 효과를 돋보이게 한 실이라 하겠다.

